한국어 의미학 58, 185-209 (2017. 12. 31.) http://dx.doi.org/10.19033/sks.2017.12.58.185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송현주
(계명대학교)

<Abstract>

Song, Hyunju. 2017. **Motivation of Korean food, clothing, and shelter idiomatic expressions.** *Korean Semantics, 5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food, clothing, and shelter idiomatic expre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especially, motivation. Our expectation is to understand how the idiomatic expressions are used, therefore, we researchers have a vast interest in the conceptualization of language users so that we categories the expressions regarding everyday life. This study based on Corpus Linguistics as a usage based model, therefore, we examine the Trend 21 corpus and dictionaries. This study allows us to know w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Koreans in relation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idiomatic expressions were motivated with various cognitive, empirical, perceptual, and communicative factors.

핵심어: 관용 표현(idiomatic expression), 동기화(motivation),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의식주(food, clothing, and shelter), 말뭉치 언어학(Corpus Linguistics)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7410).

www.kci.go.kr

1. 들머리

관용 표현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주제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논의가 있어 왔다. 구조주의 및 생성주의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은 고정되어 있는 일탈된 언어로서 수사적인 표현의 하나로 본다. 반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은 인간의 경험과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이 언어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1] 이러한 관점에서 Gibbs(2007: 697, 717)는 "관용 표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편하게 하고, 텍스트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사고의 근본 패턴을 반영하는 언어의 통합적 부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인간 사고방식의 한 측면을 밝혀줄 수 있으며, 한국어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1) a. 면사포를 쓰다
    b. 국수를 먹다
    c. 마당을 빌리다

(1)은 모두 '결혼하다'라는 뜻을 갖는 관용 표현으로 결혼과 관련한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고루 반영하고 있다. 즉, (1)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는 현대의 의복 문화, 결혼식 날 국수를 대접하던 음식 문화, 예전에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초례식을 지내는 공간과 관련된 주거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 표현은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특정 행위에 현저성을 부여한 것으로 결혼식과 관련된 부분이 결혼이라는 전체를 의미하게 되므로 개념적 환유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1) Gibbs(2007: 721)에 따르면 "언어의 많은 부분은 관용 표현과 같은 고정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를 통해 사건을 개념화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한다."

www.kci.go.kr

표현을 대상으로 그 사용 양상과 동기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2]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관련 어휘를 포함한 한국어 관용 표현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구성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관용 표현은 죽은 은유가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사회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언어 표현이 된다.

둘째, Trend 21 코퍼스를 통해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의 목록을 확정한 뒤, 이 가운데 고빈도 사용되는 일부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이들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관용 표현의 관용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실제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용 표현은 인간의 세상에 대한 인지 방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관용 표현을 살피는 것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관용 표현 연구의 방법과 의의에 대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의식주 관련 관용표현의 사용 양상과 동기화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관용 표현과 인지언어학

2.1. 선행 연구

관용 표현은 연구자에 따라 '관용 표현, 관용어, 관용구, 숙어, 익은말' 등

2) 이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며, 관용 표현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은 관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개방된 집합으로 정의할 것이다.

www.kci.go.kr

으로 다양하게 불리며,[3]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 경향은 다음의 3가지로 대별된다.[4]

첫째, 관용 표현을 고정된 구성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의 필수 자질은 관습성(conventionality)[5]이며, 관용 표현의 의미는 비합성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연구 목표는 관용 표현의 성격 탐색, 관용 표현의 기준 제시, 관용 표현의 목록 설정, 관용 표현의 형태・통사・의미・화용적 특성 파악, 문형 정보 및 변이형 연구 등이다.

둘째, 주로 사전편찬, 자연언어처리, 한국어 교육의 실용적 관점이다. 관용 표현의 사전 처리 및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며, 최근에는 말뭉치 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범위를 폭넓게 잡는다는 특징이 있다.[6] 이들 관점은 공통적으로 관용 표현의 의미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며, 주로 관용 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이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 관용 표현을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의 하나로 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의미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용 표현이 인간의 개념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동기화 방식에 대한 관심은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을 밝히는 과정이다.[7]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미 구성 방식과 관련된 동기화 양상에 충분

3) 민현식(2003), 김문창(2003) 등은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 및 연구사를 상세히 소개한 논문이다.

4)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은 송현주(2015b) 참조.

5) 관용 표현의 6가지 특징을 Nunberg & Wasow(1994: 492-493)는 “관습성(conventionality), 불가변성(inflexibility), 비유성(figuration), 격언성(proverbiality), 비공식성(informality), 정서(affect)”이라고 하였다.

6) 대표적인 연구로는 사전 편찬학 분야의 이희자(2002), 이희자 외(2004), 김한샘(2003) 등과 한국어 교육 분야의 문금현(1998), 김선정・강현자(2006) 등이 있다.

7) 인지언어학의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지룡(2006), 최지훈(2007), 나익주(2006, 2008), 심지연(2009), 강병창(2011), 김계연(2011), 이지용・심지연(2010), 강병창(2011), 송현주・최진아(2011), 김정아・송현주(2013), 송현주(2015b).

www.kci.go.kr

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과 동기화를 살핀다. 지금까지의 관용 표현 연구에서는 인간이 관용 표현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언어 사용자의 개념적 구조를 동기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므로 의식주 관용 표현에 드러난 인간의 개념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관용 표현 연구의 주제를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관용 표현 연구는 주로 감정이나 신체어에 치중되어 왔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을 주제로 삼아 관용 표현 연구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한다. 또한, 이를 동기화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관용 표현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관용 표현을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이 연구는 세종관용표현상세검색기의 관용 표현 목록을 1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최대한 많은 관용 표현 목록을 확보하고, 누락된 부분은 출판된 사전의 관용 표현 목록을 통해 보완한다. 또한 관용 표현의 실제 쓰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말뭉치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2.2. 연구 방법 및 대상

Evans(2009: 47)는 “인지언어학은 언어과학에서 언어, 마음, 인간의 사회문화적 경험 간 관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언어적 사고와 관행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파로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 중인 접근법이며, 인지과학으로 알려진 학제 간 프로젝트에서 점차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통해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개념화 모형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쏟아 왔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개념화의 문제로 본다. 즉 관용 표현을 ‘구성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갖는 굳어진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성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구조와 의미는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

www.kci.go.kr

동기화(motivation)는 인지언어학 연구의 중요한 개념 중 한 가지이다.[8] 동기화의 개념은 Radden & Panther(2004: 3-4)에 따라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동기화' 요인은 한 가지씩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동시에 작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동기가 우선적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2) 언어에서의 동기화(motivation)는 언어 단위의 구조와 의미에 작용하는 동기화의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매체(trigger)로 제공되는 기초이다. 만약 그것의 속성의 일부가 언어적 근원(구조/의미)과 언어 독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면 언어적 단위(목표)는 동기화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용법기반 모형'과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첫째, 인지언어학의 '용법기반 모형(usage based model)'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관용 표현의 실제 사용례를 분석하여 사용 양상과 동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지언어학의 접근법은 언어 현상에 대한 인간의 경향성과 문화적 배경을 중시하는 동적이며, 개방적인 모형으로(Langacker 1999: 91-145, Taylor 2002: 27-28, Evans & Green 2006: 120-145), 관용 표현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이다.

둘째,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법(corpus linguistic approach)'을 활용한다.[9] 말뭉치 언어학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직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언중들의 언어 사용의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이 연구는 실제 언어 사용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말뭉치 주도적(corpus-driven) 접근법에 따라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8) 다수의 학자들은 언어에 있어 '동기화(motivation)'란 정도(degree)의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Lakoff & Johnson(1999: 464)은 "대부분의 언어는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며 Radden & Panther(2004: 2)는 동기화의 정도에 대해 '자의성과 예측성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연속적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Taub(2001 : 8)는 의미와 기호의 본성은 자의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9) 최운호 · 강범모 · 차재은(2006)은 코퍼스에 기반한 은유 표현 추출에 관한 연구로 주목할 수 있다.

www.kci.go.kr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관용 표현 추출과 분석 단계

a. 1단계: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목록 확보

b. 2단계: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용례 추출 및 주석

- Trend 21 코퍼스에서 관용 표현의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 추출[10)]

- 관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서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 분석

d. 3단계: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분석

먼저 1단계로, 관용 표현 목록을 추출하기 위하여 세종 관용표현 상세 검색기의 관용 표현 목록과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한다. '의복, 장신구(의)', '음식명, 식재료, 조리도구, 조리방법(식)', '집, 집의 구성물(주)' 등에 대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관용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1>에서 보듯이 총 662종의 관용 표현을 확보하였다.

<표 1> 의식주 관용 표현의 유형

범주	유형 빈도	비율 (%)	관용 표현의 예
식	467	70.5	떡을 치다, 밥줄을 끊다, 콩밥(을) 먹다, 술이 길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콩 볶듯 하다, 국수를 먹다, 김칫국을 마시다
의	115	17.4	호주머니가 든든하다, 주머니가 가볍다, 옷을 벗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다, 헌 신짝 버리듯 하다, 소매를 걷다, 탈을 쓰다
주	80	12.1	집(이) 나다, 벽에 부딪치다, 벽을 쌓다, 문턱을 낮추다, 문턱을 넘어서다, 터를 닦다
합계	662	100	

10) Trends21(물결21) 코퍼스는 6억 어절 규모의 21세기(2000~현재) 문어 자료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4대 일간지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많은 말뭉치 기반 연구에서 세종말뭉치(이하 '세종')가 널리 사용되어왔다. '세종'은 1,500만 어절 규모의 균형말뭉치로 검색도구와 말뭉치가 모두 개방되어 있고, 용례검색은 물론 저장도 가능하여 연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 대상이 상대적으로 저빈도인 어휘인 경우에는 '세종'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호주머니'는 '세종'에서는 228건이 검색되지만, Trend21에서는 2,573건 검색된다. 또 '떡'의 경우에도 세종에서는 632건, Trend21에서는 12,911건 검색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용표현이 사용된 용례를 가급적 충분히 수집하기 위하여 Trend21을 활용하였다.

www.kci.go.kr

<표 1>에서 보다시피 '식(食)'과 관련된 관용 표현은 467개, '의(衣)'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 115개, '주(住)'와 관련된 관용 표현은 80개로 의식주 가운데 식문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의 유형 수가 전체의 2/3가량을 차지하였다.

2단계는 말뭉치에서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용례 추출하고 이를 기본형을 기준으로 주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형태 주석을 제공하고 있을 뿐 의미나 관용 표현에 대한 주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뭉치에서 관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만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확보한 관용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어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 후에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만을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용 표현 자체를 말뭉치에서 자동 추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뭉치에서 관용 표현의 유형 수가 많은 '호주머니, 밥, 집'과 같은 핵심어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임의의 200개 문장에서 10개 이상의 관용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로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는데, 200개 문장 중에 관용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빈도는 다음의 (4)와 같다.

(4) a. **호주머니(106)**, 옷(3), 치마(0), **탈(15)**
b. **밥(26), 떡(40)**
c. 집(1), **벽(122), 문턱(91)**

(4)에서 보다시피, '옷, 치마, 집'과 같은 단어를 포함한 문장에서는 관용 표현의 사용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의'와 관련하여 '호주머니, 탈'을 '식'과 관련하여 '밥, 떡'을 '주'와 관련하여 '벽, 문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탈'은 해당 말뭉치에서 검색된 전체 문장인 9,610개 중에서 동형어, 형태 분석 오류 등을 제외된 결과 2,397문장이 분석 대상이었다.[11] 분석 대상이 되

11) 추출된 용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휘별로 2,500개 문장씩 수집하였다.
㉠ 형태소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컴퓨터가 탈이 나면 고치는 것도 그의 몫이다.
㉡ 제시된 문장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그것이 탈이었다.
㉢ 동형어인 경우 : 이제 한숨 돌렸다고 안심한 것이 탈이었다.
㉣ 동일한 문장이 추출된 경우

www.kci.go.kr

는 데이터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호주머니, 탈, 밥, 떡, 벽, 문턱’에서 각각 2,397개 문장씩, 총 14,382개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이들 문장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 주석하고 이들 가운데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떡’이 포함된 문장을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의 (5)와 같다.

(5) a. 예식홀 안에 8명씩 앉게 된 원형 테이블에는 과일과 떡을 담은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외 약간의 주류와 음료가 있었다.
b. 일주일간 안 감았더니 머리가 떡이 됐다.
c.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전화도 개인용 컴퓨터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5a)의 ‘떡’은 ‘곡식 가루를 찌거나, 그 찐 것을 치거나 빚어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고, (5b)의 ‘떡’은 가지런해야 할 머리 따위가 한데 뭉쳐서 잘 펴지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c)의 ‘떡’은 ‘그림의 떡’으로 사용되면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12] 이 연구에서는 (5c)와 같은 관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단계는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상이나 사건, 경험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꺼내 쓰는 경험을 한다. 이때 호주머니에는 다양한

12) 『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떡’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곡식 가루를 찌거나, 그 찐 것을 치거나 빚어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낚시 미끼의 하나. 쌀겨에 콩가루나 번데기 가루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조그마하게 뭉쳐서 만든다.
㉢ 가지런해야 할 머리 따위가 한데 뭉쳐서 잘 펴지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은어로, ‘마약’을 이르는 말.
㉤ 개화기에 ‘뺑01’을 이르던 말.
㉥ 성격이 매우 유순하고 마음이 무던히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www.kci.go.kr

것이 보관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돈'에 현저성을 부여하고 '호주머니'와 '돈'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호주머니'='돈/재정 상태'이라는 개념적 환유를 통해 '호주머니'를 인지한다. 이에 따라 '호주머니를 털다'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놓는 것'을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는 '재정 상황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3.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과 동기화

여기에서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연구대상으로 삼은 의식주 관련 어휘를 포함한 문장 2,397개 중에서 관용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의식주 관용 표현의 사용 빈도

범주	단어	빈도(건)	비율(%)
의생활	호주머니	612	25.5
	탈	656	27.4
식생활	밥	170	7.1
	떡	516	21.5
주생활	문턱	1,009	42.1
	벽	753	31.4

<표 2>에서 보다시피,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중에서 의생활 및 주생활과 관련된 관용표현이 사용된 빈도가 식생활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사용 빈도에 비해 높다.

3.1. 의생활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

먼저, '호주머니'와 '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유형 및 빈도는 다음의 (6)과 같다.

www.kci.go.kr

(6) a. 호주머니를 털다/털리다(382), 호주머니가 가볍다(58), 호주머니가 두둑하다(39), 호주머니가 얇다(39), 호주머니를 채우다(33), 호주머니를 열다(22), 호주머니를 닫다(10), 호주머니를 짜다(7), 호주머니를 풀다/풀리다(6), 호주머니에서 먼지가 나다(5), 호주머니가 비다(5), 호주머니 사정이 좋다(4),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2)
b. 탈을 쓰다/씌우다(622), 탈을 벗다/벗기다(34)

(6)에서 보듯이, '호주머니'와 '탈'을 포함한 문장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전체의 25% 정도로 비슷한데, '탈'에 비해 '호주머니'는 보다 다양한 유형이 사용된다. 즉 '호주머니'는 '호주머니를 털다/털리다, 호주머니가 가볍다/두둑하다/얇다, 호주머니를 채우다, 호주머니를 열다/닫다'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탈'의 경우에는 '탈을 쓰다/씌우다/벗다/벗기다'로만 쓰여 소수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를 보이면 (7)~(8)과 같다.

(7) a. 봉사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했다.
b. 자투리 일감마저 뺏긴 중소기업들, 독과점과 담합으로 호주머니를 털리는 소비자들, 매일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c. 호주머니가 가벼운 10대와 20대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d.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소비를 늘리게 되므로 물가가 오릅니다.
e. 호주머니가 얇아진 일본인들의 소비문화가 변하고 있다.

(8) a. 다양성의 탈을 쓴 주류 상업만화의 획일성을 거부하겠다.
b. 학교가 권위의 탈을 벗어버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서 거리 좁히기에 나서면 어떨까.

(7)과 (8)은 '호주머니'와 '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포함된 예로, 이들 중 일부 관용 표현은 특정한 사용 패턴을 갖는다.

(9) a. 지금이 마른 수건 짜듯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라 더더욱 그렇다.

www.kci.go.kr

b. 구청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2년째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c. 방학 때 한국에 와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한국 책 서른 권을 사서 도서관에 줬을 정도로 오기가 생겼어요.

(10) a. 값이 싸지면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이 극장을 찾을 테니까요.
b. 호주머니 가벼운 관광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존재! 표 살 때 버스 지도 챙기는 거 잊지 말자.
c. 이와 함께 국민 평균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질러 국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졌다.
d. 호주머니가 두둑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전략이 적중했다

(9)는 '호주머니를 털다'의 용례인데, '호주머니를 털다'는 374개 문장 중에서 177개 문장에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 동사절'의 사용 패턴을 갖는다. '호주머니를 털다'는 '탈탈, 톡톡'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13]

(10)은 '호주머니가 가볍다/두둑하다'의 예인데, (10a)~(10b)의 '호주머니가 가볍다'는 전체 58개 문장 중에서 31개 문장이 '호주머니가 가벼운 + 명사(구)'의 형식으로 사용된다.[14] 반면 반대의 의미를 갖는 (10c)~(10d)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다'는 (10c)에서와 같이 26개 문장이 '두둑해지다'와 함께 쓰이면서 서술절의 형태를 띠며, (10d)와 같은 '호주머니가 두둑한 + 명사(구)'는 단 2회만 사용되었다.

(11) a. 그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결국 이것이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이라는 목표만을 위한 양의 탈을 쓴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처럼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b. 이런 전력 때문에 이스라엘 극우파들은 지금도 그를 양의 탈을 쓴 늑대쯤으로 여기고 있다.

13) 김진해(2010: 36)는 부사가 관용 표현을 수식할 때에는 관용 표현 전체의 의미가 아닌 구성 요소의 문자적 의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시치미를 떼다'에서 관용 표현 전체의 의미인 '모른 체하다'가 아닌 '시치미를 떼다'에서 '떼다'에 대한 '뚝'을 수식어로 삼는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김진해(2010) 참고.

14) 또한, 58개 문장 중에서 '가벼워지다'가 사용된 것은 20건으로 이는 해당 말뭉치가 보도문이라는 특성상 보도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www.kci.go.kr

c. 고마운 언니인 줄 알았던 그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d. 브래디는 34년 전 어린이 셋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맨체스터 근교 황무지에 매장한 흉악범으로 (…) 사람의 탈을 쓴 악의 화신으로 상징됐다.
e. 진보의 탈을 쓴 도덕주의자들과 상업주의에 물든 보수주의자들을 모두 야유하고 있는 슈바니츠의 대학별곡이 독일만의 풍경이 아님은 물론이다.
f. 유독 지능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과학의 탈을 쓴 정치적 범죄에 불과하다고 굴드는 말한다.
g. 스스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언론의 입을 닫게 하겠다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라고 할만한 행위다.

(11)에서 보다시피, '탈을 쓰다'는 '명사 + (의) + 탈을 쓴 + 명사(구)'와 같은 패턴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탈을 쓰다'에 선행하는 명사에는 '양(44), 인간(43), 사람(16), 진보(17), 과학(12), 민주주의(11)' 등이 있다. 특히 '양의 탈을 쓰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쓰인 경우가 24개로 44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2. 식생활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밥'과 '떡' 관련 관용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그 유형 및 빈도는 다음의 (12)와 같다.

(12) a. 밥 먹듯 하다(103), 그 나물에 그 밥/그 밥에 그 나물(37), 다 된 밥에 코/재 빠트리다(14), 죽도 밥도 안 되다/아니다(11), 한솥밥을 먹다(4), 한 술 밥에 배 부르랴(1)[15]
b. 그림의 떡(375), 떡 주무르듯 하다(20),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17), 남의 떡이 커 보인다(16), 이게 웬 떡이냐(14), 누워서 떡 먹기(13),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13),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10), 우

15) 『표준』에서는 '한솥밥'을 표제어로 삼고, 그 뜻풀이를 '((주로 '먹다'와 함께 쓰여)) 같은 솥에서 푼 밥.'으로 하면서 용례로 "한솥밥 먹는 식구/역시 한솥밥 먹는다고 무언으로 이 녀석 편을 드시는군요."를 들고 있다. 용례를 보면 '한솥밥'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솥밥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용례로 교체하거나, 한솥밥의 의미를 다시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용적인 의미로만 쓰인다면 '밥' 아래의 관용구 목록에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www.kci.go.kr

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10),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8),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5), 떡을 치다(3)[16]

(12)에서 보듯이, '밥'과 '떡'을 포함한 문장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각각 7%와 21%로 차이가 있다. '밥'은 '떡'에 비해 관용 표현으로의 쓰임이 적으며 그 유형도 상대적으로 단조롭다. '밥 먹듯 하다'와 '그림의 떡'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떡'의 경우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관용 표현이 사용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의 (13)~(14)와 같다.

(13) a. 밤일을 밥 먹듯 해가면서 한 평생을 직장에 몸 바쳐온 근로소득자가 정년퇴직할 때 손에 쥐는 돈은 잘 해야 1억 원이 넘을까말까 한다.
b.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도, 정당도, 내건 공약도 그 나물에 그 밥,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곤혹스럽다.
c. 주제넘게 북의 사상과 체제를 흡수, 동화시키려 하다간 남북이 다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4) a. 그러나 인터넷 초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b.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
c.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고기나 생선, 과일은 일단 보기가 좋은 것이 상태도 좋다.

위에서 살펴본 '밥'과 '떡' 관련 관용은 특정한 사용 패턴 또는 선호하는 선행 명사를 갖기도 한다.

(15) a.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독야청청 버티고 있다.
b.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만큼 일손이 모자란다.
c.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집을 짓다 보니 허기가

16) (12b)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저빈도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더 있다. "가을비는 떡비(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2), 떡 달라는데 돌 준다(1), 떡 주고 뺨 맞는다(1), 떡에는 별 떡이 다 있어도 사람은 별 사람 없다(1), 남의 떡으로 설을 쇠다(1), 물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1),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1), 아저씨네 가게 떡도 비싸면 안 사먹는다(1), 아지매 떡도 커야 사 먹는다(1)"

www.kci.go.kr

져 하늘이 노랗게 보이곤 했다.

(16) a. 그처럼 지천으로 깔린 미국 변호사도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b. IC칩 카드를 읽어 들이는 단말기가 깔려있지 않으면 스마트카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 일반인엔 '그림의 떡' 각종 비과세혜택 누려.
d. 아무리 할인율이 높고 만기가 짧아 높은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다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5)에서 보다시피, '밥 먹듯 하다'는 총 103개 문장 가운데, 선행 명사로 '거짓말(20), 밤일/야근(16), 굶기(6)'를 취하는 경우가 40% 가량 된다. (16)에서 보듯이, '그림의 떡 + 이다'의 패턴으로 사용된 경우는 222건이며, '그림의 떡'만으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69개에 이르며,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18개 나타난다. 또한, '그림의 떡'은 377개 문장 중에서 197개 문장에서 따옴표와 함께 쓰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3. 주생활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문턱'과 '벽' 관련 관용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그 유형 및 빈도는 다음의 (17)과 같다.

(17) a. 문턱을 넘다(313), 문턱이 높다(229), 문턱을 낮추다(187), 문턱이 낮다(92), 문턱에서 주저앉다(70), 문턱이 닳다(63), 문턱을 밟다(28), 문턱을 높이다(27)
b. 벽을 넘다(288), 벽을 허물다(201), 벽에 부딪히다(111), 벽을 깨다(51), 벽이 높다(39), 벽을 뚫다(29), 벽이 무너지다(20), 벽을 쌓다(12)

(17)에서 보다시피, '문턱'과 '벽'을 포함한 문장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각각 40~30%로 앞서 살펴본 '호주머니, 탈, 밥, 떡'을 포함한 관용 표현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다. 또한, '문턱'과 '벽'은 '넘다, 높다'라는 서술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때 '문턱'과 '벽'은 모두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어려움

www.kci.go.kr

을 뜻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의 (18)~(19)와 같다.

(18) a. 프로구단 문턱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b. 경제적인 여건으로 병원 문턱이 높기만 한 극빈층과 노숙자들이 삼삼오오 발걸음을 시작했고 올 들어 정식으로 사랑그루터기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c. 공공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체험장을 확충해야 한다.
d. 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매체들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보다 문턱이 낮은 곳이 됐으면 해요.
e. 지난해에도 4강에 올랐으나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17]

(19) a. 그는 인종과 언어의 벽을 넘기 위해 학창 시절은 물론, 변호사 개업 초기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잠자 본 적이 없다며 성공하기 위해 뛰는 동안에도 한국인의 설움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b.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과 동서의 벽도 허물자는 게 이날 운동의 취지였다.
c.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이 벽에 부딪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계획했다는 분석이다.
d. 그는 또 상아탑과 외부 세계간의 벽을 깨고 대학원내에 기업인 교육 센터를 개설했다.

위에서 살펴본 '문턱'과 '벽' 관련 관용의 특정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a. 중견그룹에 속하는 A기업 자금담당자는 새한그룹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한 달 전쯤부터 투신사와 은행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다.
b. 직장 일에 쫓기거나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던 엄마들 역시 자녀들을 함께 키우느라 어린이집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이웃의 정을 쌓아가고 있다.
c. 친분이나 연관이 전혀 없는 업체도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장학금 기증을 부탁하고 설득하러 다닌다.

17) '문턱에서 주저앉다'는 70회 중에서 69건이 '우승, 연승, 결승, 본선 진출' 등과 함께 쓰이면서 스포츠 기사문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www.kci.go.kr

d. 이 때문에 예금이자 수입은 줄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 등 가계가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e. 죽의 장막을 보호해온 관세 문턱이 낮아지고 상품시장이 경제를 지배함에 따라 중국은 세계 각국과 나란히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21) a. 우선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간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제휴가 공식적으로 허용돼 금융업종 간 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b. 종이와 인터넷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무수한 기회를 인류 앞에 열어주었다.
c. 그렇게 해서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전쟁 없는 평화통일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d. 군수는 "이제는 부서와 동료 사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결하는 게 과제"라며 "복장, 보행, 인사, 민원인 응대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에티켓'을 생활화하면서 행정의 속도와 정확도, 합리성도 높이겠다"고 말한다.

(20a)~(20c)와 같이 '문턱이 닳다'는 63개 문장 중에서 40개 문장이 '문턱이 닳도록 + 이동 동사'의 패턴으로 사용되는데 동사로는 주로 '드나들다, 들락거리다'가 사용된다. (20d)~(20e)와 같이 '문턱이 높다'는 229개 문장 중에서 34개 문장으로 14% 가량만이 '높아지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문턱이 낮다'는 92개 문장 중에서 60개 문장으로 65%정도가 '낮아지다'를 사용하고 있다.[18]

'벽을 허물다'는 (21a)에서와 같이 '명사+간+벽을 허물다'는 38회, (21b)~(21c)에서와 같이 '명사+와+명사+의 벽을 허물다', '명사+의+벽을 허물다'는 104건 사용되는데 이중에서 '마음의 벽을 허물다'는 12회 사용된다. '벽'에 선행하는 명사에는 '지역감정/지역주의/지역(16), 불신(12), 마음(12), 분단/분단정치(11), 금융업종(9), 업무/업종(5)' 등이 있다.

이상에서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중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호주머니, 탈, 밥, 떡, 문턱, 벽'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유형과 빈도, 사용 패턴을 살펴보

18) 분석 대상이 된 말뭉치는 4대 일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언론은 '문턱이 높아지는' 변화보다 '문턱이 낮아지는' 변화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턱이 낮아지다'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 듯하다.

www.kci.go.kr

았다. ‘밥’을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에서 20% 이상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관용 표현은 비교적 고정된 사용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의식주와 관련된 한국어 관용 표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한국어 관용 표현은 한국인의 삶의 경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의식주와 관련한 한국어 관용 표현에 사용되는 어휘는 한국인의 삶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의식주 관련 어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준다.[19] 아래의 <표 3>은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서 핵심어와 해당 단어를 포함한 관용 표현의 유형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의식주 관용 표현에 나타난 핵심어와 관용 표현 유형의 수

범주	관용 표현의 핵심어
의	호주머니/주머니(25), 옷(10), 치마(8), 신(8), 탈(6), 소매(6), 허리띠(6), 상투(5)
식	밥/밥맛/밥그릇/밥숟가락/밥술/밥통(69), 떡(51), 술/술독/술잔/술도가(41), 콩(26), 죽/죽사발(25), 소금(23), 맛(22), 호박씨/호박(18), 솥(13), 쌀/쌀독/쌀광(12), 기름(11), 냉수(11), 잔(10), 도마(8), 보리(8), 음식(8), 군침(7), 곶감(7), 장(7), 엿(6)
주	집(23), 벽(15), 문턱(10), 터(8)

영어 의식주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인 이윤영(2014: 23-25)과 비교해 보면, 두 언어의 관용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리띠, 소금, 벽, 문’이며, ‘밥, 떡, 곶감, 상투, 터’와 같이 한국어 관용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19) 이윤영(2014: 23-25)은 의식주와 관련된 영어 관용어 386개를 분석하여 범주별 어휘 빈도를 밝힌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의’와 관련하여 hat, pants, shoes, heels, belt, socks, sleeve, boots, apron, stocking 등이 쓰이고, ‘식’과 관련하여 apple, egg, bread, salt, potato, beer, cheese, butter 등이 쓰이며 ‘주’와 관련해 wall, home, fence, floor, house, door, ceiling 등의 어휘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적지 않다. 이는 관용 표현이 한국인의 의식주의 경험이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식생활'과 관련하여 밥, 떡, 술, 콩, 엿, 국수 등을 포함한 관용 표현이 여럿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밥'을 포함하는 관용 표현이 69가지로 가장 많고 '떡' 51가지, '술' 41가지 관용 표현이 있어 '밥, 떡, 술'이 식생활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 문화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험이 이들 관용 표현의 종류를 풍성하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의생활'과 관련한 관용 표현에는 '호주머니/주머니'가 25가지, '옷'이 10가지, '치마'와 '신'이 각각 8가지로 관용 표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20] '호주머니/주머니'가 포함된 관용 표현의 종류가 가장 많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주머니가 가볍다, 호주머니가 두둑하다, 딴 주머니를 차다'와 같이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다수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 상황이 중요하며, 자주 언급되는 주제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전통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감투, 방립, 사모, 삿갓, 고무신, 짚신이 포함된 관용 표현이 있다. 이들 단어 중에서 '감투, 방립, 사모, 삿갓'은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며, '감투'는 관용 표현 속에 남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면사포를 쓰다, 웨딩드레스를 입다'와 같은 관용 표현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관용 표현은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죽은 표현이 아니라 현대 언어생활에서도 활발히 생산·사용되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생활'과 관련한 관용 표현에는 집, 벽, 문턱, 터 등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의식주 가운데 주생활과 관련된 관용 표현의 유형이 가장 단조롭다. 이는 주생활과 관련한 어휘가 식생활이나 의생활에 비해서 어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통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다, 안방을 차지하다' 등이 포함된 '문지방, 봉창, 안방'을 주목할 수 있다.

---

20) 이는 '주머니가 가볍다=호주머니가 가볍다,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처럼 '주머니'와 '호주머니'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용 표현의 종류가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www.kci.go.kr

둘째, 관용 표현은 개념적 은유와 환유에 의해 동기화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사포를 쓰다, 국수를 먹다, 마당을 빌리다'는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어로 모두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들 표현은 모두 결혼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사건의 일련의 단계 가운데 언어 사용자가 가장 현저하게 파악한 사건의 한 부분을 통해 결혼이라는 전체 사건을 표현한다.

다음의 '호주머니를 털다/열다/풀다'를 통해 관용 표현의 동기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22) a. 봉사활동에 들어간 비용 200여만 원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했다.
b. 소비자가 왕이라면 생산자는 고객의 호주머니를 열게 해야 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대형마트 유통거래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약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호주머니를 풀었을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관용 표현의 동기화는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21]

(22)에서 '호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호주머니'에 인접한 '돈'을 지각적으로 가장 현저하게 인식하고 그 외의 부분과 구별해서 파악한다. '개념적 환유'는 같은 개념 영역 안에서 인접성을 통해, 개념적으로 현저한 실체를 통해 또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인지적 전략이다. 여기에서 현저한 매체인 '호주머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과 인접성에 의해 이해된다.

(23) a. 쉬지 않고 나오는 문제를 맞추다보면 2~3분 만에 10여 문제를 푸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b. 그러나 불행하게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으니 어찌하랴.

21)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 혼성에 관해서는 임지룡(2017: 16~17) 참조.

www.kci.go.kr

(23)에서 ‘누워서 떡먹기, 죽도 밥도 안 되다’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이해된다. ‘개념적 은유’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근원영역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전략이다. ‘누워서 떡먹기’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근원영역이 존재하고, ‘문제 풀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이들 두 영역 간에 ‘쉽다’라는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고, 이에 ‘누워서 떡먹기’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죽도 밥도 안 되다’ 역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죽’이나 ‘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은 실패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언어 사용자가 어떤 사건이나 대상 가운데 가장 현저하게 지각하는 부분을 통해 전체 사건이나 대상을 표현하는 개념적 환유와 함께 두 가지 영역 간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개념적 은유라는 두 가지 기제에 의해 동기화된다.

4. 마무리

이 연구는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의식주와 관련된 관용 표현의 목록을 확보한 후, 의식주 각 영역별로 고빈도 사용되는 관용 표현의 사용례를 분석하였으며, 개념적 은유와 환유에 의한 동기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관용 표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피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관용 표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과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관용 표현을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의 하나로 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서 있으며, 용법 기반 연구를 위하여 Trend 21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3장에서는 관용 표현의 사용 양상과 동기화를 살펴보았다. 의식주 관련 관용 표현 중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호주머니, 탈, 밥, 떡, 문턱, 벽’과 관련

www.kci.go.kr

된 관용 표현의 유형과 빈도, 사용 패턴을 살펴보았다. ‘밥’을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에서 20% 이상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관용 표현은 비교적 고정된 사용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에 포함된 어휘는 이와 관련한 한국인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관용 표현은 개념적 은유와 환유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 관용 표현 중에서 일부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병창(2011).「독일어와 한국어 손 관용구의 비유적 의미구성 비교」,『독어교육』50, 독어교육학회, 81-104.

권경일(2010). 관용구의 변이형과 사전의 표제어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15, 한국사전학회, 103-127.

고명(2017).「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계연(2011). 일한 양언어의 ‘食’ 문화 관련 관용표현의 대조고찰」,『일본언어문화』20, 일본언어문화학회, 33-54.

김계연(2016).「한일 의(衣)어휘 관용표현 대조고찰」,『日本硏究』70,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15-236.

김문창(2003).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 약사 ,『한국어 의미학』13, 한국어의미학회, 13-22.

김선영(2014).「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한국언어문화학』11(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3-46.

김세현(2017).「국어과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의 비판적 분석 ,『새국어교육』109, 한국국어교육학회, 127-151.

김억조(2011).「결합 관계를 통한 차원 형용사의 의미 연구」,『국제언어문학』23, 국제언어문학회, 75-97.

김정아 · 송현주(2013).「친족어 관용 표현의 개념화 양상」,『언어과학연구』64, 언어과학회, 71-90.

김주식(2010). 영어 관용어의 개념적 동기화」,『언어과학연구』52, 언어과학회, 17-36.

www.kci.go.kr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한국어 의미학』13, 한국어의미학회, 23-41.
김진해(2010).「관용 표현 연구의 새로운 쟁점」,『한국어학』49, 한국어학회, 37-64.
김한샘(2003).「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한국어 의미학』13, 한국어의미학회, 43-67.
김향숙(2003).『한국어 감정표현의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나익주(2006).「'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한국어 의미학』20, 한국어의미학회, 91-120.
나익주(2008).「사랑의 개념화: 문화적 변이 가능성 탐구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88.
남길임(2010). '아니다'의 사용패턴과 부정의 의미」,『한국어 의미학』33, 한국어의미학회, 41-65.
남길임(2017). 한국어 부정 구문 연구를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접근」,『한국어 의미학』56, 한국어의미학회, 135-159.
문금현(1998).「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이중언어학』15, 이중언어학회, 207-233.
문금현(1999).『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민현식(2003).「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한국어 의미학』12, 한국어의미학회, 17-50.
박영준・최경봉 편저(1996).『관용어 사전』, 태학사.
박영진・송무(2007). 영어 관용어의 인지 기제 교육의 학습 효과」,『영어교육연구』19(4). 영어교육학회, 201-232.
송현주(2015a).「인지언어학적 어휘 연구를 위한 말뭉치 기반 접근-'시간'을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58, 국어교육학회, 171-198.
송현주(2015b).「관용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접근」,『국제언어문학』31, 국제언어문학회, 71-95.
송현주(2015c).『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송현주・최진아(2011).「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 표현 교육 연구」,『중등교육연구』59(3), 중등교육연구소, 789-812.
심지연(2009).「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윤영(2014).「영어 의식주 관용어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회논문.
이주용(2016).「한일 양 언어의 신체어휘 관용표현 대조 연구」,『언어학연구』40, 한국중원언어학회, 257-283.
이지용・심지연(2010).「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한국어 의미학』31, 한국어 의미학회, 209-247

www.kci.go.kr

이희자(2002). 「'관용 표현'의 사전학적 연구 - '관용구 사전학'의 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385-404.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4).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 편찬 연구 」,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99-122.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임지룡 외(2015).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임지룡(2017). 『한국어 의미 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최운호・강범모・차재은(2006).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257-279.

최지훈(2007). 국어 관용구의 영상도식적 은유 연구」, 『한국어 의미학』 23, 한국어의미학회, 181-207.

황정아(2008).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vans, V.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Gibbs, R. & J. E. O'Brien(1990). Idioms and mental imagery: The metaphorical motivation for idiomatic meaning. *Cognition* 36. 35-68.

Gibbs, R.(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옮김(2003).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Gibbs, R.(2007). Idioms and formulaic language. In Geeraerts & Cuyckens. eds.(2007).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697-7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ackendoff, R.(1993). *Patterns in The Mind: Language and Human Natur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이정민・김정란 옮김(2000). 『마음의 구조: 언어를 통해 본 인간의 본질』, 태학사.)

King, K.(1999). *The Big Picture: Idioms as Metaphors*, Houghton Mufflin Company.

Kövecses, Z.(2005).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nglotz, A.(2006). *Idiomatic Creativity: A Cognitive-linguistic model of idiom-representation and idiom-variation in English*. John Benjamins.

Markert, K., & Nissim, M. (2003). Corpus-based metonymy analysis, *Metaphor and symbol*, 18(3), 175-188.

Radden, G. & K.U. Panther(eds.)(2004).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Radden, G. & R. Dirven(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

www.kci.go.kr

Philadelphia: John Benjamins.
Wulff, S.(2010). *Rethinking idiomaticity: A usage-based approach*. A&C Black.

송현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42601
전화 번호: 053-580-5611
전자 우편: songhj@kmu.ac.kr

원고 접수일: 2017.11.20.
원고 수정일: 2017.12.27.
게재 확정일: 2017.12.28.

www.kci.go.kr